

반도체 메가투자, '그들만의 잔치' 대선 안돼



기고
최승재
중소기업융부즈만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찾아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화두다.

용인과 평택 등을 중심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본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과격적인 세제 혜택과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고 관련 대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며 막대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진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거시 경제의 축포 아래 산업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중소기업인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벤처·중소기업인들은 씩씩한 표정으로 묻는다. "과연 저 거대한 축제에 우리를 위한 자리도 있느냐"고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이뤄낸 기업의 혁신과 그에 따른 보상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국민의 세금과 국가적 인프라가 집중 투입된 메가 투자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만의 전유물로 끝나

거나 자칫 거대 자본과 정치권만의 '윈윈(Win-Win)'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대기업이 수출을 이끌고 덩치를 키우면 그 아래 하청업체와 지역 골목상권까지 온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 하지만 고도로 자동화되고 복잡해진 첨단 산업 시대에 낙수효과는 더 이상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다.

대기업이 수조 원의 이익을 내도 1·2차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거래 관행에 시달리며 생존을 걱정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대기업의 이익이 사회 전반으로 건강하게 스며들게 하려면 그 물길을 이어줄 탄탄한 '파이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파이프라인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다. 수백조 원 규모의 지역 메가 투자가 진정한 국가 경제 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굴지의 대기업 몇 곳의 결단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혁신적인 반도체 설계(팹리스)를 맡고, 나노 단위의 정밀한 패키징을 담당하며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적시에 공급하는 튼튼한 중소기업 생태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거대한 반도체 특수 현장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규제의 곱셈 법칙'이 어김없이 작용한다.

정부가 서둘러 부지를 지정하고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정작 그 도로를 함께 달려야 할 협력 중소기업들의 트레일러가 꽂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현실의 수많은 소부장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지지체의 경직된 인허가 절차, 비현실적인 산업단지 입주 제한, 현장과 괴리된 낮은 화학물질 취급 규제 및 환경·안전 지침 등에 발이 묶여 제때 공장을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앞길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아래 시원하게 열려주면서 정작 그들의 손발이 뻐줄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해결이 '0'으로 굳게 닫혀 있다면 공급망 전체에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곱셈의 법칙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라는 최종 성과 역시 '0'에 수렴하고 만다.

진정한 초격차 경쟁력은 나 홀로 질주하는 독주가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를 이끌고 함께 비행하는 편대비행에서 나온다. 온 국민이 지지하는 성공적인 메가 투자가 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성과를 나누는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과 함께 협력 기업을 묶어내는 '현장 밀착형' 그림자 규제 혁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중소기업융부즈만

흑자는 쌓이는데 원화는 왜 불안한가



기자수첩
김주형
(금융부)

달리는 쌀이지만 원화는 웃지 못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경상수지는 386억 1000만달러 흑자였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다. 1~5월 누적 경상수지도 1412억8000만달러 흑자로,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를 반년도 안 돼 넘어섰다.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의 대외 장부는 더없이 탄탄해 보인다.

하지만 체감은 다르다. 원·달러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낮춘 숫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불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있다. 나라가 달러를 이렇게 많이 벌었다는데 왜 원화는 좀처럼 강해지지 않는지 의문이 생긴다. 좋은 통계와 불안한 체감이 동시에 놓인 셈이다.

과거의 문법은 비교적 단순했다.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면 국내에 들어오는 달러가 많아지고, 이는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 문제는 흑자가 원화 안정으로 넘어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데 있다.

실제로 5월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 지분이 역대 최대 규모로 빠져나갔다. 국내 증시가 오르자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매도가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커졌다. 수출이 벌어들인 달러가 있어도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달러가 크면 원화는 쉽게 안정을 찾기 어렵다.

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도 변수다. 5월 말 기업 달러예금 잔액은 829억9000만달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업 입장에서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달러를 곧바로 원화로 바꾸지 않는 것이 합리

적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경상 흑자가 곧바로 외환시장 내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

경상흑자는 국가의 장부를 개선하지만 고환율은 가계의 장비구니와 기업의 원가표를 먼저 흔든다. 수출 대기업에는 환율이 실적 방어막이 될 수 있지만 수입 원자재를 쓰는 기업과 소비자에게는 비용 부담이다. 해외여행, 유학비, 수입물가를 통해 고환율은 일상으로 들어온다. 좋은 숫자만으로 국민의 불안을 달래기 어려운 이유다.

경상수지가 크게 흑자를 냈는데도 원화가 불안하다면 필요한 것은 흑자 규모의 강조가 아니라 그 숫자가 왜 체감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한국 경제는 달러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번 달러가 원화의 신뢰로 곧장 돌아오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gh471@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0일 (음 5월 26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겸손하게 처신하세요. 60년생 모든것에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72년생 옛날의 악연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길에서 돈을 주웠으나 임자가 있는 돈일 것입니다.



49년생 욕심이 자녀를 잘못 만들 수 있습니다. 61년생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반듯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73년생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85년생 대범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0년생 추후에 재산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62년생 투자처를 찾고 있다면 잠시 뒤로 미루세요. 74년생 주위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도 안보입니다. 86년생 이성에 도움을 청하세요.



51년생 주위에 괜히 스트레스를 부리지마세요. 63년생 다이어트가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75년생 감당하기 벅찬 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목돈 들어갈 일이 발생합니다.



52년생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64년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76년생 집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88년생 우유부단하면 기회를 잃게 되니 결단력을 갖추는 게 좋습니다.



53년생 지나간 미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5년생 소중한 물건을 분실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89년생 차분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54년생 이기적인 판단은 매우 흉합니다. 66년생 불필요한 과소비를 줄이세요. 78년생 주변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겠습니다. 90년생 가정에 큰 경사가 생길 좋은 운입니다.



55년생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으세요. 67년생 욕심을 버리면 위안을 삼을 일이 생깁니다. 79년생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91년생 새로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옵니다.



56년생 충분히 승산이 있는 하루입니다. 68년생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80년생 현명함과 뛰어난 총명함이 보입니다. 92년생 차분히 집중해야만 길을 찾게 됩니다.



57년생 지금 추진하는 일은 잘 됩니다. 69년생 성공이 좋은 결실을 이루는 궤입니다. 81년생 신분에 걸맞는 소망은 성취되는 시기입니다. 93년생 통이 너무 큰 것이 다소 흉합니다.



58년생 부인은 현모양처의 기질을 발휘할 때입니다. 70년생 즐거져 따르게 되는 운 기입니다. 82년생 이미 어려움을 건너 해결된 형국입니다. 94년생 기분전환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59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71년생 동료와의 기본 만남이 있습니다. 83년생 재물운과 이성운이 좋은 시기입니다. 95년생 앞길에 어려움이 생겨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인연의 고리

살다 보면 우연을 많이 경험한다.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누군가를 만나거나 기회를 얻게 되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는다. 불가적 믿음에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말한다. 모든 만물은 인연 법에 따라 생멸한다고 하는 것이니 우연이니 필연이니 하는 얘기들도 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우리의 안목이 짧으므로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 보통 사람들은 인연 법을 얘기하려 치면 인간관계에만 국한하곤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 해당하는 논리이다. 어떤 장소, 즉 지형에도 내게 좋은 기운을 주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다. 그래도 세상살이에서 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 인간관계인 것이다. 인연 법은 선연과 악연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인연으로 나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조심할 것은 당연히 나쁜 악연(惡緣)이다. 나쁜 인연 즉 악연도 각각 강도가 다르다.

그저 안 보고 피하면 될 악연도 있지만 피할 수도 없는 악연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자면 부부인연으로 만났는데 악연인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악연이니 헤어지면 되잖아, 이혼하면 되잖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헤어지고 할 때 순수히 이별해주는 사람은 좋은 인연일 수도 있다. 악연인 사람은 순수히 헤어져 주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가 죽을까지 해치는 예도 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인연들을 보시지 않는가? 그러나 사람을 만날 때도 쉽게 인연을 맺을 일이 아니지만, 악연일수록 처음 만날 때 확! 하고 끌리는 경우가 많다. 첫눈에 반해서 끝까지도 좋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 이별 수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첫눈에 스피크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 불가에서는 웃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부는 8000겁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인연 값을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95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54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